東亞日報 夕刊 合刊十二面

科學的裝備에依한 米國陸軍合理化

師團單位兵力을縮少하야 戰鬪力增强을計劃

【워싱톤一日發同盟】米國陸軍參謀本部는 世界大戰以來 外國의 [illegible] 科學部 [illegible] 着手 [illegible]

[illegible] 하야 一個師團의 兵力은 一萬二千乃至一萬四千으로 縮小하엿으나 師團의 戰鬪力은 이에 依하야 何等影響을 받지 안하고 [illegible] 行하엿다 米 [illegible] 三、米國陸軍은 數的으로는 아직도 [illegible] 特히 近代的裝備는 [illegible] 한 [illegible] 五分之三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各科部隊에 [illegible] 하야 [illegible] 機械化를 企圖하고 [illegible] 하지안호면 안된다

알라스카의數個處에 大規模飛行根據地

廿四時間內約一千臺離着陸

米陸軍當局設置決定

【워싱톤二日發同盟】米國陸軍은 알라스카의 페아방크스 [illegible] 陸軍 [illegible] 飛行根據地를 設置하기로 決定 [illegible] 하고 그 [illegible] 二十四時間以內에 約一千臺의 飛行機가 離着陸할수잇는 大規模의것이라고 한다。

伊에紛爭의論功行賞

日本漁船四隻을 蘇聯邦에서拿捕

濃霧와故障으로漂流中의것

領海侵犯의名目下에

【東京電話同盟】페트로파우로스크 [illegible] 日本漁船 [illegible] 中의 [illegible] 濃霧 [illegible] 故障이 생겨 漂流 [illegible] 領海侵入 [illegible] 拿捕되어 [illegible] 페트로파우로스크 [illegible] 하야 日本側 [illegible] 不可抗力 [illegible] 되엇다

東亞勸業態度變更

鮮滿拓殖創立延期

【東京電話同盟】鮮滿拓殖會社 創立 [illegible] 東亞勸業 [illegible] 八月下旬으로 延期될 [illegible] 이다

獨라인再進駐後의 懸案一切에斷案

로카르노會議에서

【제네바一日發同盟】英代表 [illegible] 佛代表 [illegible] 七月二十六日 [illegible] 로카르노保約會議를 [illegible] 決定하엿는데 會議의 [illegible]

一、獨政府의 植民地要求
一、[illegible] 自由市의 나치스運動
一、墺國問題

이 會議에는 獨伊兩國代表도 [illegible]

北中에의經濟方策 外相에重要進言

前後一個月實情視察終了코 桑島東亞局長歸國後

【神戶發電】前後一個月의 日程으로 中國實情視察次로 갓든 桑島東亞局長은 上海에서 川越大使 [illegible] 二十九日 外務省에 報告가 잇엇다 [illegible] 北中의 日本經濟工作에 對한 [illegible]

郵便料引上?

遞信側言明廻避

【東京電話】郵便料金引上에 [illegible]

四個條의要求提出

謝罪、處罰、保障等

今井北平駐在武官이三十日

日本將校監禁事件으로

【北平二日發同盟】豊台에서의 宋哲元軍의 日本軍將校 不法監禁事件에 對하야 今井北平駐在武官은 三十日 冀東外交委員長代理陳 [illegible]

一、責任者의 謝罪
一、責任者의 處罰
一、[illegible]
一、將來의 保障

等四個條의 要求를 提出하엿는데 [illegible]

宋氏自身馮治安隊의 兵士에嚴重訓戒

日本抗議에唐皇하야

【北平二日發同盟】宋哲元氏가 [illegible] 하고 嚴重要求를 提示하엿으므로 [illegible]

圓滿解決答辯

陳外交委員長

【北平二日發同盟】[illegible]

堀써書記官 青島에

茂登丸事件으로

【上海二日發同盟】茂登丸事件 [illegible]

獨中借款成立의 眞相을正式回答

外交部、兩宮武官에게

【南京二日發同盟】[illegible]

日本人殺害事件

三日判決言渡

【北平二日發同盟】[illegible]

今三日午前 國策決定閣議

注目되는首相의裁斷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拉致日本人의 卽時釋放要求

駐蘇太田大使가

【모스크바一日發同盟】[illegible]

當分再起困難

主治醫가安靜을勸告

【런던二日發同盟】[illegible]

知事警察部長 會議

明年度부터는 連續招集變故

[illegible]

小學校教員 俸給

道府縣支辦을 學務部長建議

【東京電話同盟】[illegible]

消息

▲[illegible]

夕刊後市況

[illegible]

性器發育不全·生殖機能障害

眞空吸引 物理療法

青年期·煩悶解決의鍵!

世界的新療器의出現!

男女關係와性

性的缺陷의影響

物理療法의發見

性器短小贏弱

陰萎·早漏·遺精

生○器와內分泌

「ホリック眞空水治器」

日·獨·佛·英·專賣特許 ホリツク眞空水治器

짜지안코自手로되는 包莖의成形法

◇包莖을내버려두면 여러가지危險이 [illegible]

「가짜가잇다、반드시ホリック을 [illegible]」

明書「性の新知識」 進入說

東京新進 [illegible] 研究所

ClibPDF - www.fastio.com

第七回全朝鮮 男女學生作品展準備

放學엔自然속에살며 藝術의싹을기르자

學校와家庭에서督勵하여 學生展의榮譽를獲得하라

본사주최로 매년가을에 열리는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全朝鮮男女學生作品展覽會)는 본사의 연예행사의 하나로되어잇을뿐아니라 이전람회에 해마다출품하야오는 전조선각지의 초등 중등남녀학교와 학생들에게잇어서도 가장 크고또의의잇는 연중행사의하나로 되어잇다. 금년은 제七회로 十월十六일부터 二十五일까지 열흘동안 역시본사三층 대강당에서 열리게 되엇는데 본사에서는이번은 예년보다도 더성대히 하기위하야 지금부터 부서를 나누고여러분을 내고하야 준비에 착수하엿으니 각학교에서도 방학전부터 학생을 독려하야 조흔작품의 제작에 힘써서 예년에없은 조흔성적을 보이도록하여주기를 바라는바이다.

연래로 이전람회에는 조선안에잇는 각학교뿐만아니라 멀리 해외에 나가잇는동포들의 제二세와 예술품까지 모여왓엇으므로 여기에 우리는 예술 조선의 커어운싹 틉을 한데 모아 볼수가 잇슬뿐아니라 이것을 거니보고추려내고 함으로써 이방면의 향상에적지안흔 도움을하여온줄로 믿는당 사실 이전람회에입선이나 또는입상이 된것을기회로 자기의 소질에 대한 자각과 자신이 생겨서 더욱 그방면으로꾸준히 나가가지고 이미 성공한 사람도 하나둘만아니오 일반적으로 보아서도 각학교의 예술교육에 적지안흔 자극을 주어오는터이다. 각학교당국선생들이 본사의 취지에 찬동하야 조흔작품을 만히내도록 한다면 그것은 단지 본사를 위하여서뿐아니라 그학교와 선생과 학생들을 위하여서 더나아가 조선을 위하야 참으로 반가운 일이겟다.

◇ ◇

작품을 내는데는 다음에 요항과 규정에 의하여 출품하도록 하기바라며 대체에 잇어서는 예년과 다름이 없으나 다만 개회기가예년에는 十월중순으로 하엿는데 이것은 각학교의 편의를 위하야 그러케한것입니다. 그리고 습자와 도화를 초등학교 학생은 각三점이상은 내지못하기로 한것과 습자를 한문부(漢文部)와 한글부로 나너서 한층더 출장려하자는것, 종래 수에에 합작품(合作品)이 만헛는데 들어오면 발고 조흔것이 잇으면 입상도시키기는 하엿지만 되도록 합작품보다도 각개인의 개성이 잘나타난 단독작품을 환영하기로하엿다는것등이 예년보다 다르다. 그리고 심사원과 심사일등은 추후로 발표하기로 되엇다.

出品에對한規定

一、作品에는 每一個에 下記事項을 記入한 紙片을 添付하되 違反하면 審査에 넣지아니함 (이에 違反하면 審査에 넣지아니함)

學校名、學年別、中等、初等、男女別、氏名、年齡

一、出品作에는 반드시 在籍學校擔任先生의 證明書를 添付할것

一、出品作에는 價格을 明記할것

一、出品作은 東亞日報社 庶務部로 보내되 外封에 반드시 學生作品이라고 朱書할것

一、出品作을 返送하야 달라는 者는 返送料金을 添付하야 返送을 願하고 (但 返送料金은 本社가 負擔함 그外는 返還치아니함)

(返送料金의 添付 잇는 追送이 잇어도 此에 應치아니함)

一、中等部中 專修學校生의 出品은 別途 特殊取扱함

一、出品作을 審査한 結局 入選되지못한 作品은 다시 嚴選하야 入賞을 決定하고 入賞作品中 優秀한 作品이 有할時는 特賞을 施함

要項

一、開會期間 十月十六日부터同廿五日까지十日間

一、開會場所 東亞日報社三層講堂

一、作品搬入 十月一日부터 同五日까지

一、搬入場所 本社와平壤、大邱、咸興支局

一、出品種別 中等科 圖畵、習字(漢文・한글)手工手藝 / 初等科 圖畵、習字(漢文・한글)手工手藝

◇…細雨머즌郊外의農村

金顯杓公判 二年半判決

【대구】 한편다리의 불구자로서 적색독서회(赤色讀書會)의 책임자가되고 멀리만주까지가서 ○○군(○○軍)의 공파금 증수와정보수집등 비약적활동을 계속하다가 중대한사명을 띠고 조선으로 잠입한 듣기에도 엄청난 ○○군사건의 공소공판이 개정되엇다. 三十일 오후二시경 대구복심법원 제三호법정에서 송본(松本)재판장주심 유천(柳原)검사의 입회하에 피고김현표(金顯杓)(二七)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이 열리엇는데 피고는 외편다리를 못쓰는 불구자로서 한발도 뛰어범정에나왓으나 그의쾌활한 태도와 유창한답변에는 만정을이루엇든 방청인을 놀나게하엿다. 사건의 내용을보면 피고김현표는 광주학생사건(光州學生事件) 당시에 동맹휴학의 주모자로인증되어 퇴학한후 소화八년 一월경 동리 김현두(金顯斗) 김현룡(金顯龍)등과 협의하고 좌익독서구락부를 조직한다음 주의선전과 동지획득에 노력해오다가 동년八월경에 김현표는 만주로 건너가서 조선○○군이란 단체에가입하야 재만조선인에게 공파금을 증수하는것과 지방정보를 수집하는임에 당하여 활동을계속하다가 十년一월경에 그의 불구자인것을 기화로 거침없이조선으로 잠입하야 전기 김현두 김현룡두명에게 그의사명을 말하고동○○군에 가입시킨후 각방면으로 동지획득에 활동하다가 발각체포된것이라는데 일족 전주(全州)지방법원에서 김현표 징역二년六개월, 김현두, 김현룡 각 징역一년에 三년집행유예의 판결을받고 김현표만 불복공소하야온것이라는바 복심에서는 一심과같이 재판장으로부터 징역二년六개월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慶北旱魃地對策 小地區에水組施設

八十萬圓의經費를드려서 明年부터五年繼續

【대구】 한발의고장인 경북도내에서는 천수답(天水畓)만이 七만五천정보나되는것으로피폐되어잇는 농민의 생활을 여지없이 위협하는 한발은 十개년가운데 약六、七개년의 수확을 못보게하는것이 최근 소화원년이래의 현상이다. 이에 도당국에서는 그의 한발의대책을 연구에 연구를거듭하엿든바 원래경북도는 타도에 비하야 고원(高原)지대가 만흠뿐아니라 근년래로 쌍잡이 어느곳으로보다 고카로필리게되는데 농민들은 밧을부처서 수원이없는곧에도 논을개간한것도 없지안는터이므로 한발의예방책은 용이치안흔것이다. 종래의방대한 수리의대공사로서는 고원지대의 천수답에까지미치수없는 형편으로 부득이소지구(小地區)의수리를 시설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엇다. 늦어도 명十二년도부터 도내四十二개소의 소수리지구(小水利地區)를 설치할예정인데이에 관한총경비는 약八十五만원이나 요하게되겟으므로 조선총독부에 국고의보조를 요청할터이라는바 명년에서 五개년의계속사업으로 착공하리라 한다.

樂界의權威를網羅 "夏期音樂"開講

主催延專音樂部 後援本社學藝部

해마다 연희전문학교음악부 延禧專門學校音樂部 주최와 본사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전조선남녀하기음악강습회(全朝鮮男女夏期音樂講習會)는 금년도 제六회를 다음과같이하기로하엿는데 더구나 이번에는 강습과목을 더늘이고 강사에 악계의권위를망라하야 더욱내용을충실하기로 하엿으며 강습처소인 연희전문학교가 복잡한 대도시에서 조금떠러저잇어 소나무들러잇는속에 공기가맑고 서늘하며 사면이고요하야 수양하기에 적당할뿐아니라 뒤에는 산、앞에는강이잇어 등산、수영이 모두조흐므로 이강습회는단지 음악공부를 위한것뿐아니오 겸하야유양까지되는것이다.

日字 七月三十日午前九時부터八月八日까지(十日間)

處所 京城府外延禧專門學校

任員

會長 元漢慶 副會長 兪億兼

本部委員 崔淳周、林炳赫、徐恒錫、蔣合秀權、張鶴英

寄宿舍委員 林炳赫、宋致明

娛樂委員 李宗鎬、洪

接待委員 李春吳、崔奎南、李

顧問

講師 朴慶浩、鄭勳謨、玄濟明 …

(一) 피아노 피아노奏法 피아노音樂에對한講義 作曲法

(二) 바이오린 奏法 敎授法

(三) 聲樂 發聲法 視唱法 獨唱法

(四) 樂理 音樂에對한基礎知識及一般樂理

(五) 敎會音樂指導法及 普通學校音樂敎授法 宗敎音樂講義 樂隊指導及其他科目以外로

合唱又는管絃樂練習과 指導練習도잇스며 時間配定에 依하야 自由로練習하게함

娛樂休養

諸般準備로서 會員의健全한娛樂을 圖하기爲하야 庭球 籠球 排球 軟式野球 핑퐁 懇親會 音樂會 野遊會等을 隨時開催함

寄宿舍

會員寄宿舍를 設備하야 諸般便宜를圖함

會費

會費二圓 寄宿費一圓 (但寄宿舍入舍生에게만 限함) 食事는 舍生이他處에서自由로할것

準備

十日間지내기에 便利할 用品과 寢具를準備할것은 勿論이고 가진樂器中必要한 것과 樂器도가지고오기를 바란다

參加節次期日

七月廿五日까지 (八十名以上은 받지안켓슴으로 先着順으로함) 書信으로나 口頭로나 會費二圓을添附하야 京城西大門外 延禧專門學校 音樂講習會에 入會申請을하기를바람 (振替口座 京城八七六二番 電光一(九九二)九九)

蒼松의延禧村에서

治外法權의撤廢로 年租權을永租權으로

特殊財閥에겐有利하지만 細民에겐課稅만增加

【봉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철폐에 따라 과세권(課稅權)과 일반산업행정권(產業行政權)이 七월一일부터 만주국으로 위양됨에따라 종래에일본 기득권이 발생하는동시 종내의 년조상조선도(年租商租權)(혹은 三十년 혹은九十九년) 만주국수령(滿洲國令)으로써 영조소유권(永租所有權)으로 되게되어 일만재산가들에게 잇어서는 만주국에 의무납세(義務納稅)라는가 기타모든 것에잇어 만주국에서얻는 소득과 비교가유익하다고 볼수잇게되겟지만 아무리소유권이 생겻다고하여도 일반 근로대중에게는 한푼의떡〃밖에되지못하고 아무 직복수한 소득이없이 과세만을부담하고 일반대중의게는 빈약한경제생활에잇어서 적지안흔 고란을 남긴것이라고 한다.

高農事件豫終 七名公判에廻附

大邱學生層에赤色團體組織 大邱地方法院에서

【대구지국전화】 작년十一월 경에 송국이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은 서간 대구지방법원 상내(相澤)예심판사의 취조를 받어오든중 일에예심종결이되어 공판에 회부되엇는데 기소된 사람은 김종수(金鍾洙)(二三) 이봉필(李容必)(二二) 최홍기(崔弘基)(二四) 김광태(金光泰)(二一) 김재흔(金在昕)(二一) 유재환(劉在煥)(二一)七명인데 이들이 활동한경로는 수원고농을 연락본부로하고 경성(京城)중 중심하야전조선각지에 공산당(共產黨)수립을 목표로하고 대구(大邱)에서 학생층을 중심으로한 적색단체를 조직활동중 작년一월경부 김천(金泉)에서 이용필이 체포된동시에 모든 사실이 탄로되엇다 한다.

名堂자리찾든孝子? 暗葬罪로警察에

迷信이나흔可笑의봄

미신이 나흔 효자의 말로!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碧蹄面碧蹄里) 그동리에서 이름난 김광호(金光浩)(三一)라는 지관이말하기를 부모는 자기노모가 세상을 떠낫을때 극난에 가고 또한 어것이 효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바람에 면에서 허가맡은곳은 거짓장사를지내고 파주군탄현(坡州郡炭山)에 매장하기로 면장의허가를얻엇는데 …

月尾島、松濤園에 郵便所開設

체신국에서는 하기 해수욕객의 편리를 위하야 인천월미도(仁川月尾島)와 연산송도원(元山松濤園)해수욕장부근에 오는 七월十六일부터 八월三十一일까지 임시우편소를 개설하고 一반우편물、전보、전화를 접수하리라한다.

四百의最大反滿軍과 騎馬接戰七時間

◇…赤峯의北方吳同華에서 死體百餘個를遺棄

【신경一일발동맹】 열하(熱河) 三十일오후二시 적봉(赤峯)북방 주둔의 영목(鈴木)본부대에속한 삼택(森脇)부대는 열하진존의 최대반만군 주영구(周永久)가거느린 四百명을 급추하여六시간 四十일리의 지점오동화(吳同華)에 서 반만군을 만나 격전七시간에 궁한 기마전을 연출하엿 이를계 반만군은 사체百 명마八十을유기하고 계주연하엿는데 일본군은 이외군마百두를 포획하엿다. 이전투에서 일본군은 二명의전사、一명이부상되엇다.

洪川小林鑛서 鑛夫墜落卽死

【홍천】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洪川斗村面自隱里)에잇는 소림광산에서 광부가 추락하야 즉사한 사실이 잇다. 주소를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洪川南面陽德院里)에 두어 전기광산에 광부로 잇든 김수남(金秀男)(三一)은 지난달 三十일 오후九시경 광혈(鑛穴)에서 작업중 잘못하야 지하(地下)三백척되는 단에서 추락하야 즉사하엿다고 한다.

咸南對岸에 兵火가不絕

【함흥】 함남경찰부 착전에 의하면 삼일경찰대 제五중대 四十명은 廿六일 오후三시경 五도구 벽지 임강현계방면에서 약卅명의 홍군부대와 격전시여에 二명의 홍군을 사살하고 벽지방면에 격퇴하엿다는바 이싸움에 총기다수도 획득하엿다고한다.

廿七일 오전五시경 각자 장총과 권총을가진 계통불명의 마적 四명이 하남대안 十六도구 문암동(門岩洞)구장 방진옥(方進玉)의방에 침입하야 조선인 김기석(金基錫)이동 二명을 납거하고저 하엿으나 두사람모다 부재중이므로 목적을 달치못하고 퇴거하엿다고한다.

그리고 임강현 오도구 부근으로부터 七도구벽지에 잠재중이든 동산호(東山好)압동양(壓東洋)의 연합부대 二十명은 廿七일서양 八도구 태양사(太陽社)에 이동하야 목하 동지부근에 잠재하고잇는터인데 十三도구 서강성거주의 조선동포 오인간(吳仁吉)에대하야 국폐(國幣)千원과 … 전지三十개를 오는열흘까지에 제공하라고 협박장을 보내여왓는데 하남대안은 물정이 소연하야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날로 늘어가는 형편이라고 한다.

彌助港坊波堤 築造를陳情

【남해】 남해군 삼동면 미조항(南海郡三東面彌助港)방파제 축조문제는 소화九년도에 본부당국까지 발문하고 진정한일도잇섯는데 당국에서는 공사비八만원의一활을 이 지원주민 부담하라면서 지금까지 전연되어오는데 방파제도 二千여주민의 생명재산에 중대한관계가 잇으므로 하루속히 착공하여 달라고 어업조합 이사 임용삼(林勇三郎)씨외 二명이 지난二十八일 도당국에 진정하엿다한다.

논물싸움에 洞民을蹴殺

高陽郡入峯里에서 생긴일 ◇안해로부터告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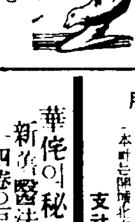
고양군 벽제면 입봉리(高陽郡碧蹄面入峯里)一三五 송우복(宋又福)은 지난 二十七일 오후二시경 자기집앞논에 물을대다가 동리 김복만(金福萬)(二八)과 물싸움을 하게되엇는데 김복만에게하복부를채인후 이래 신음하든중 지난三十일 오후六시경에 사망하야 그에 안해인 유언연(柳彦淵)으로부터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엿는데 에는 사체를 해부에부치기로 하고 전기 김복만을 인치취조하리라 한다.

天然町에怪死體

시내 천연정(天然町)에잇는 천연장(天然莊) 주택지 뒤산에는 三十여세되어 보이는 남자의사체 시체가 발견되엇는데 서대문서에서는 즉시현장에 서원을파견하야 검사해본결과 병사한 거지시체로서 죽은지가 상당히 오래된것으로 판명되엇다.

武裝共產黨 銅佛寺에出現

【연길】 지난二十七일 오전一시경 간도 동불사(銅佛寺)관내 유수천(柳樹川)에서 동남쪽으로 一리허되는 배요촌(排窯村)에 二명은 장총、二명은 권총을 휴대한 계통불명의 무장공산당이 불현하야 촌내 만인 왕영(王英) 종무세(馮茂世) 방가에 침입하야 현금十원三十전과 기타식량 품물을 다수약탈하여가지고 북쪽인 계관산(鷄冠山)방면으로 도주하엿다는바 이급보를접한 당지만주국 경찰서원 ○명과 철도국경부단○명은 즉시 출동하야 추격탐사중이라 한다.



그날그날

(陽七月三日(金曜日)) (陰五月十五日(丙戌))

日出前 五、一五 日入後 七、五九

月出前 六、四九 月入後 五、三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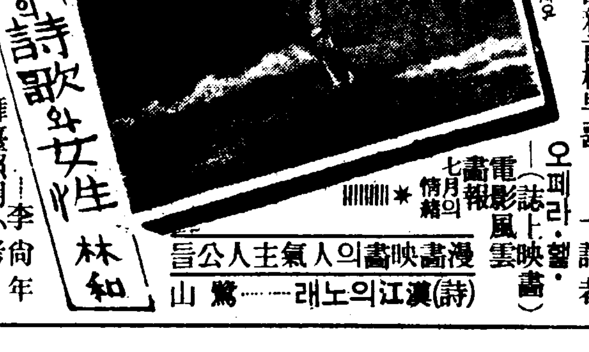
滿潮 仁川 前四、二〇 後四、二五 / 鎭南浦 前八、三〇 後八、四五 / 釜山 前七、四五 後八、〇五

오늘의天氣 / 맑겟다 때때로흐리겟다

大衆雜誌! 實益趣味兼備! 七月一日号出來! 定価十錢! 涼味充溢! 斷然人気独占! 哀悼끌기!特輯

高麗時報 月二回

露文學上地位……咸大勳
人間끌기―와作品的끌기―……李箕永
生涯와業績……洪曉民
追悼詩 朴八陽 朴世永 金海剛
哀悼辭! 文壇人二十餘諸氏總執筆
產室의一夜 毛允淑
國際聯盟은어데로?……高永煥
佛蘭西新首相부름……一記者
오페라・헐・電影風雲 (誌上映畫)
七月의畵報情緒
漫畵映畵의人氣主人公들
(詩)漢江의노래……鷺山



朝鮮의詩歌와女性……林和
舞臺照明小考!……李尙年
★青春感激版★
盛夏의奇緣……朴英熙
F港의少女……李軒求
威海衛碧波……丁來東
動物의母性愛……金秉河
撮影小講……姜大薰
避暑地案內……C生
漫画欄 三一松!
北斗星(隨筆)……李殷相
떠애기(漫筆)……多汗生
連載長篇小說★ 聖火 李箕永
野談 人情悲劇과情話 靑吾
★白頭山 統一는내내 ★沙漠잔山파조조 ★千里 山은파와와 ★밧 山 金하하 ★展印島그는는 望象印言風風 ★ 景景
★韓……李金金 / 蔡……李金金 / 仁……萬周永晋 / 澤……植洪義燮
아'고리윤山!바다!
發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出版部 京城府堅志町三二 電話光二四七七 振替京城七六六〇 本社는城北本町 支社募集!

華佗의秘方公開! 新舊醫法의寶庫! 四卷으로되어잇는이靑囊訣은實로新舊醫法의豪華版이다。家庭마다備置할重寶는이것!
南采範先生著
靑囊訣
全四帙 一冊 定價八圓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町三二 電話光化門二四七七・一九七二 振替京城七六六〇
特典! 一部分을오려서同封하야注文하시는분에限하야 二割引으로 계한다 (送料는本社負擔) 告이廣

ClibPDF - www.fastio.com

社說

에치오피아皇帝의 熱辯

[illegible]

英米蘇三國合同 對日牽制를 劃策?

北中의 歐米勢力驅逐한다고 ◇蘇聯機關紙의 論評

[illegible]

赤化危機의 歐洲

히總統의 提唱으로 反共쁠록 形成

코민테른의 對歐工作을 沮害 複雜微妙한 最近政情

[illegible]

現代人의 生活은 浪費가 甚하다!

米國바부송翁警告

[illegible]

伊記者團을 國外로 逐放

瑞西政府에서 發令

[illegible]

印度國民議會

獨逸伯林日報에서

[illegible]

中繼放送

流行貌樣스파이 追放令을 起草

維也納의 珍法案

[illegible]

自由市란 名爲하고 伐齊爲名 딴치히는 獨逸天下

市旗는 潛影, 鉤十字旗飄揚 自力獨立의 三大難點

[illegible]

英國의 流行本營은 斷然! 皇室이다

洋服맵시는 現英帝陛下 帽子는 女皇母女분

[illegible]

專賣展覽會 二日부터 夜間開場

[illegible]

煙草耕作組合 理事會議開催

[illegible]

自作農創定 確定方針遂行

[illegible]

煙草材料手當品 入賞者決定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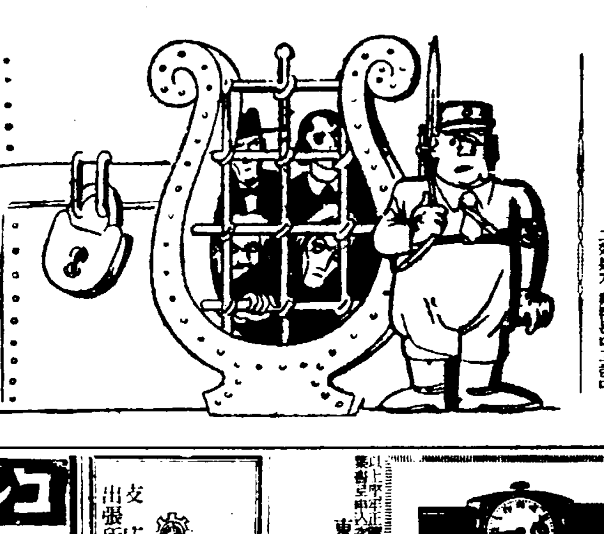
鐵道遞信益金繰入 既定方針대로 邁進

◇馬場藏相具體案準備

[illegible]

漫畫世界

第三帝國下의 藝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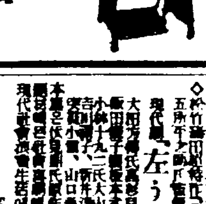


鐵鋼商 (イ) 市來商店

東亞日報購讀請求所 金泰業商店

前에는 씽거ー 지금은 콘크드로ー루

機械並使用法은 씽거ー미싱과 同樣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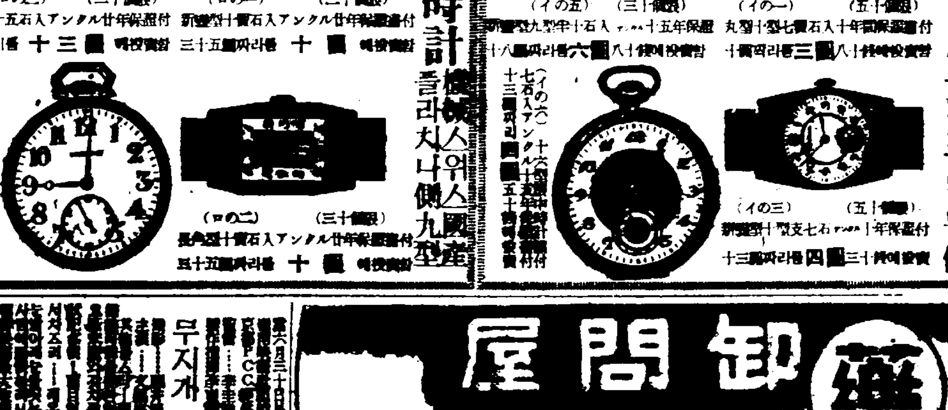
朝鮮代理店 楠商店

株式會社 漢城銀行

東洋時計會社

(イ) 實用時計 機械스위스 크로무側

(ロ) 高級時計 機械스위스國産 플라치나側九型



第一劇場

優美館

水經一萬哩

무지개 「虹」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일즉자고 일즉깨고 グリコ도 잊지말고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電話架設을 促함
靑川 一記者

靑川을 貫하지안케 사랑하는 者의 熱望은 此를 쓰지안코는 마지안케한다.

우리靑川은 面積이 十二方里에 戶內가 三千餘戶, 戶數二千餘요 人口가 一萬三千에 達하며 農産物의 總收入으로는 …… 他地方에 讓步지안는다. 年産額二十八萬石, 우리 靑川의 特産物로는 …… 水産物等이 豐富하야 年産額이 八萬圓이라는 數字를 ……

우리靑川에는 金融, 通信, 交通에 있어 四通五達로 便利할이 將來의 新興都市의 活現을 如實히보이게한다. 우리靑川에서 不過二里되는 ……

京釜線에서 …… 靑川은 그러면 우리靑川은 他地方에 比하야 …… 地方에 큰 影響이다 ……

釜山鎭草梁間의 十二萬坪의 海面埋築
第一年工費만百四十萬圓으로
大釜山建設의第一步

【부산】부산부는 경제상 군사상 지대한 요충지대이라 그 항만시설은 놀랄만치 진보하게 되엇다.

부산진 초량해안에 약十二萬평의 매축공사는 제一기공사비 七百四十萬圓 …… 금년도 예산이 一百四十萬원이요 그 중 一년이 …… 今年度부터 착수하게 되엇다.

부산진과 초량해안에 …… 주야로 수십척양에 분주한데 …… 완성된다고 한다.

土價騰貴를奇貨로 惡德뿌로커跋扈
借地料倍徵、不應이면撤去要求
金泉邑借地人等恐慌

【김천】경북김천(金泉)읍내에는 서가중요지와 대지(垈地)가 대부분 미대지주와 소유인관계상 시가발전상황이 만튼바 작년에 이르러 토지시가가 폭등함을 기회로 토지뿌로커—가 횡행하야 一반차지인의 살림을 불안케하는 일이 종종이잇는데 최근에는 이뿌로커—난틈이 부산(釜山)모부호의 소유인 대화정 성내정 남산정 각 등지의 대지 수만평을 매수하다고 계약금을 하야노코 이사지인에게 대하야 배에 상당한 지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가옥을 철거하라고 위협하야 이 지방 소유자들은 …… 다는데 그들의 이수단이 진정된 때에는 지대인들은 …… 一반사회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며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 잇다 한다.

統營南朝鮮籠球大會光景

順天에火災 一戶를全燒
【순천】지난三十일 밤중 순천대수정 순천(順天)대수정 …… 상점에서 불이 ……

喜雨가變해 霖雨로變慮
【진영】우리농촌으로보아서는 대개가 다행한일이나 장마가 길어져 …… 오래 잇다가는 농작물에 큰 해가 잇슬 것이라 한다.

市區改正、公普增設等 大開城建設工作
명년도에는 기필코 실현토록
開城府猛活動開始

【개성】개성은 상업도시 유람도시 산업도시로 발전할 …… 시구개정과 공립보통학교 증설 …… 명년도에는 기필코 실현하도록 …… 한다.

全朝鮮水上競技 開城에서開催
【개성】개성고려청년회에서는 본보개성지국 후원하에 오는十九일에 제一회전선수상경기대회를 당지부영풀에서 개최한다는데 …… 당일 경기종목은 다음과 갓다.

▲自由型 一〇〇米、四〇〇米 ▲背泳 一〇〇米 ▲平泳 二〇〇米 ▲리레 (四〇〇米)

安康秋蠶延期
【안강】경북안강(慶北安康)을 중심으로 …… 한다.

高興牛疫流行
【고흥】고흥군 풍양 남양 동강(東江) 방면에는 금춘부터 우역(牛疫)이 유행 ……

慶南에接踵하는 警官瀆職事件

이번은鎭海署司法主任을 馬山刑務所에收容
關係者數名도同時에收容코
事件은漸次擴大形勢

【마산】경남마산에서 발생하여 …… 진해경찰서 사법주임이 …… 마산형무소에 수용 …… 사건은 확대될 형세라고 한다.

貧民戶稅를代納
【합천】경남 합천군 대병면 …… 빈민의 호세를 대납하야 …… 칭송이 자자하다 한다.

進行列車에投身 自殺한青年
【점촌】지난三十일 오후四시三十五분에 경북 안동(安東)역을 떠나 김천(金泉)으로 가는 제六렬차가 …… 청년이 투신자살 ……

沿海州出漁不能으로 慶北漁業界大打擊
매년 조흔성적을 보이왓으나
日蘇交涉不進의影響

【포항】경북동해(東海)에는 …… 연해주(沿海州)에 출어하지 못하게 되엇다는데 이로 인하야 경북어업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한다.

강도頻發하는全南에 넌센스騷動一幕
소판돈먹으려고虛僞告發

【광주】전남지방에서는 강도사건이 빈발하야 경찰당국에서는 …… 넌센스 ……

小兒兩名이 同日에慘死
【정주】지난六월三十일 오후三시경에 ……

高利貸金을詐取해 遊興未洽에逐檢局行
行金九萬圓으로享樂
貯蓄銀行釜山支店員太田榮

【부산】조선저축은행 부산지점(朝鮮貯蓄銀行釜山支店) …… 태전영(太田榮) …… 고리대금 …… 九萬원 …… 검사국으로 송치 ……

水原農業學校 七月一日開校式
【수원】다년간 수원농업학교 ……

開講時間지나도록 講師一人도無影
학생들은 학무과에 선처요청
大成醫講紛糾遂惡化

【대전】본정二정목 대성의학강습소(大成醫學講習所)의 학생대표자 …… 강사 …… 학무과에 …… 선처를 요망하였다 한다.

學生들은同盟— 退學願提出
선납수업료반환 조건부로
警察은學生數名檢束

先納한授業料는 返還하겟소
所長 鄭般釆氏談

男便食物에 毒藥을섞어
미연에발각해 요행무사
羅州邑松月里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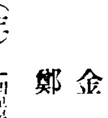
【광주】예정없는 결혼생활을 …… 남편 …… 독약을 섞어 ……

會合
◎牙山郡農生 …… 六月二十七日부터 同二十九日까지 ……
◎養城煙草耕作組合 …… 七月一日 ……

消息
◇松氏作氏(馬山署長) ……
◎朴氏 ……

淺書
●慶州 去七月一日 ……
●陜川 陜川地方에는 ……
●馬山 馬山稅務署에서 ……
●晋州 ……

密林 (191)
金末峯 作　鄭玄雄 畫



소금도짜다 (三)

……「선생님 나는 지금부터 어딤을 ……」

……

家庭技藝綜合講習會
◇時日 自六月三十日至七月九日十日間
◇場所 金海邑北內洞 ……
◇講師 文化堂金剛九商店, …
◇科目 文化刺繡、フランス刺繡洋服裁縫、美術
◇會費 五十錢 (二人限)
主催 東亞日報社金海支局

第一回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七月十日、十一日 午前九時
◇場所 ……
◇申請締切 七月十二日
◇會費 一組 ……
主催 東亞日報社改山支局
後援 改山庭球俱樂部

地方論壇

文盲退治에힘쓰자

鏡城 一記者

新興洞은 戶數 一千五百餘戶 人口 ……을 算하는 東海岸의 有數한 港灣이다. 그러나 ……에 ……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市民들은 …… 少하고 公衆에 미칠줄 ……것이이 比較的 低能하다.

文盲打破의 潮流는 都市에서 農村으로 밀려들어오고 배우자! 修業하자! 우렁찬 소리는 三千里 坊坊谷谷에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새文明 새思潮의 이때에 뒤떠러진 우리新浦만은 꿈속까지도 …… 文盲이 되어 ……

失職에우는同胞青年

新京市에七百名

四割以上이中學校以上出身者

그들將來는如何

【신경】 고국에서 실직에 울다 다는데 근일 당국의 조사한바에 …… 상 ……이 二百五十인가량이나 …… 한인 동포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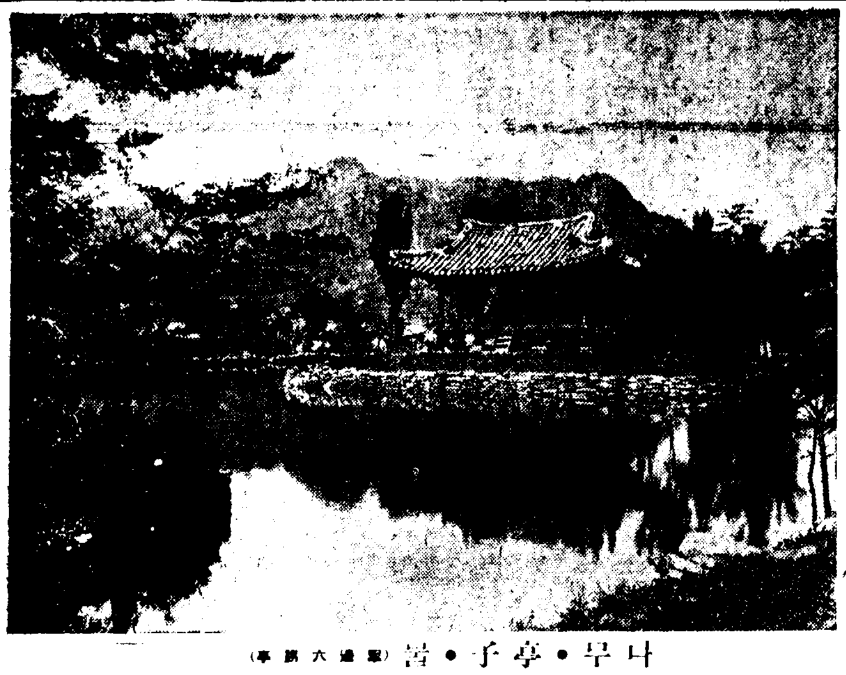
新京驛下車同胞

每日平均四十餘名

就職은 極難코 下宿은 滿員

漫然渡滿은危險千萬!!

【신경】 근일 신경서원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매일 고국에서 실직에 울다가 수도신경을 찾아하고 ……



나무·亭子·뫼 (聖澄六景의 一)

普光校增築의 寄附許可나와

【안주】 유영기관으로 안주 安州에 없지못할 존재인 사립보광학교는 사년여 …… 경비가없어 ……

四百萬圓들여

普通江을改修

◇드디어 지할하천이 된다

全朝鮮最初의 變更

【평양】 四백만원의 거액을 던지어 평양부 보통강 普通江은 …… 지할하천 ……

上級校入學爲해

戶籍을僞造

◇정명本파된 땀위해

面長職利用햇다發覺

【함흥】 적령 適齡이 초과된 자기딸을 상급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마음으로 면장이라는 공직을 이용하야 ……

日賃一圓에 배인"黃色奴隷"

朝鮮의"알라스카"

平北鑛·夫二萬三千

頭上엔死神、保護法도없어

【신의주】 높고 낮은 산山마다 모두 금과 은으로 보이는 …… 조선의 "알라스카" ……

昌道서全部被逮

送電銅線切斷犯

【창도】 김화군 창도 ……

三道浪頭에서

鶴島丸坐礁

【신의주】 六월二十九일 오후 六시四十분경 대련 大連 조선상회 ……

梨花保育團北地方巡廻團出發 (一日京城驛서)

六歲天才提琴家

白高山君獨奏會

本報新義州支局主催

【신의주】 본보 신의주지국 주최로 오는 三、三 ……

音樂童劇의밤

四日咸興永生高普서

解雇된稅關吏

前職行勢코行悖

結局은警察署에引致

【신의주】 二十八일 ……

不發彈爆發로

六少年重傷

군대에서 내버린것 주어다

羅南羅北川邊의慘事

【나남】 군부도시인 나남 羅南 에서는 ……

龍岡無産兒童機關

廣崇學院에曙光

새로院舍를建築

三南災民移住한

江西農形今年도無望

한발혹심으로대용작도못심어

生路일흔移住民의困境

定平旱魃繼續

楊口郡教育總會

安州平野旱魃로

到處水戰·魚族全滅

각각으로 공황화하는 민심

警察은停戰에紛忙中

江陵을中心으로

通貨僞造行使

五十錢銀貨를 大量造出

十一名公判에廻附

稅關에發覺되어

逃亡타溺死

民會教育機關

組合서經營

家庭音樂大會

元山不動産競賣

하로에十九件

咸北藥草採取

具體案確立

霖雨期앞두고

傳染病發生

환자二十九명에 六月들면서激增돼

价川에火災

梨花保育「音樂과童劇의밤」

七月三日 元山 保惠女子舘講堂　四日 咸興 永生高普講堂

六日 北青 北青劇場　七日 城津 遊聚座

八日 清津 共樂館　十日 會寧 會寧劇場

十一日 龍井 公會堂

主催 梨花保育學校

後援 東亞日報社各支局

ClibPDF - www.fastio.com

大連地方紹介版

日復日躍進하는 滿州新興의大都市
人口五十二萬을抱擁

[illegible]

名所와史蹟

埠頭 [illegible]

滿鐵本社 [illegible]

四大公園 [illegible]

老虎灘 [illegible]

露天市場 [illegible]

華工收容所 [illegible]

大連市街의全景

祝地方紹介版

敏腕活動兼備

關東州朝鮮人會理事長
東洋企業合資會社社長
金賢弼氏

[illegible]

宗敎界有功

大連朝鮮基督敎會長老 金世鴻氏

[illegible]

謹告

[illegible]

東亞日報社大連支局長 金永澈 白

貿易界의獨步

三成貿易公司支店主
崔春根 氏

[illegible]

精巧迅速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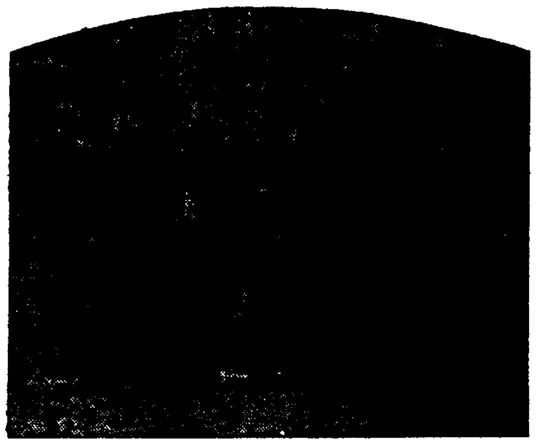
미나도寫眞館主 張履建氏

[illegible]

自働車界覇者

前田自働車商會主 許明斗 氏

[illegible]



前田自働車商會

朝鮮人惟一機關인 公益法人團體

關東州에雄據한朝鮮人會

[illegible]

醫學界獻身

大連衛生研究所在勤 奇龍肅氏

[illegible]

信望이多大한

大連朝鮮人相愛會會長
鄭秉旭 氏

[illegible]

設備가完全한

信鮮旅館主 玄濟邦 氏

[illegible]

信鮮旅館의前景

祝 大連紹介版

公益法人團體 關東州朝鮮人會
理事長 金賢弼

大連朝鮮人相愛會
會長 南秉旭

自働車販賣
並部分品
鑛油類
諸機械
前田商會 (船舶部)
主 許明斗
(電話三三九〇番)

金星會館
代表 金賢弼

貿易三成公司大連支店 主 崔春根

順天貿易公司出張所 主 鄭德仁

海運委託 貿易商 三共商會 主 金鉉涉

貿易界
華北公司大連出張所 白根珠
三川公司 姜昌洛
興滿公司 洪淳文
信益商會 黃龍洙
金海公司 金宗弼
三成號 李俊玉
張洛基商店
亞東公司 趙國泰

信鮮旅館
主 玄濟邦
大連市大黑町七七二番地
電話長(三)一〇一五番

滿鐵本社
衛生研究所 奇龍肅
工作課 宋禹憲
建設局計劃課 趙南喆
農務課 李學文
工事課 李天承

東洋企業合資會社

高級 미나도寫眞館
東亞日報大連支局寫眞班員
主 張履建

辻山新聞部 姜德熙

旅館 大滿旅館

柳漢洋行大連出張所

南海堂製本部 咸寧鎭

關東州機船組合 鄭道俊

大連朝鮮人相愛會 役員一同

東亞旅館

平順洋行 趙龍洙

朴宗濂

西崗子警察署 白義賢

大連警察署 李殷相

朝鮮屋 金淳道

朝鮮料理 第一館

大連貨物運送組合 理事 吉村金一

(元祖) 朝鮮料理 泰西館 田仁奎

[illegible] 主 [illegible]

朝鮮料理 大連館

朝鮮料理 逢川樓

朝鮮料理 三好樓

朝鮮料理 滿月館

朝鮮冷麵 平壤館

朝鮮冷麵 千鳥屋

白七俊

[illegible] 金世鴻

漢城旅館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黎明期 (88)

第二部 第□章
張赫宙 作
鄭玄雄 畫

회전 1

안라는 긴장에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한이 버티어잇슴니다 남이 생활을하는 가장속에서 처럼이 올으는 분노를 참을수 없엇다.

그러나 이런 일을 누구하테 무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할말하다가는 되려 사람들의 외확을사서 최신이헌데 정조나 유린당한것 같이 의심을 받을런 어쩌나!

평생을어두는것이 생활이옂겻같이 사람들이 「노라이야」하고 외처고 최신이를 뚫어버리엇스니 얼마 재앙으로든 이일을 발설치는 안을것이다.

안라는 그러케생각하고는 마치 자기에게 이 일이 생김이 좋지못하였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싶으리 만치 흥분하엿다 그러나 이번만은 피곤하지만 뒤어놔야 하겟다는것이엇다.

안라는 하영이 만든 그와 분수 리를 해결하였다.

하영이를만나구 살은 마음이불 현듯이나 하지못할것 같엇다. 일은 새벽에 그는 하영이를 찾어갓다

「네?」

하고 하영이는 안라의 이야기를 듯고놀랏다.

「저런 고약한 놈이……」

하영이도 분김에 일은 생각이 떠올으지 아니하는것 같엇다.

「그냥 잇슬수는 없소」

하영이는 발끈하여 「고소를합시다」 그놈을 유치장에라도 집어넣어야지」

「그러케는 하시지 말어요」

안라는 하영이와 발을하면서 「그러케햇다가 도루 제가 사회의 외확이래두 사면 어떠케요. 그놈이 혹여 저를……」

「아—정루 그럽지요 안라의 발을하던 하영이는 안라의 발음에서 「그러면 이러케……」

안라의 걸음이 앞으로 유지하엿든 가가리에 아무 말없이 하고 가는 사람 하나 동아저것은 그를따라 더 안하여 따라오는 이야기를 아무래도 그냥두기는 앗가운 일이엿다.

「그러기에 발엇느다. 하여간 내 허는데로 마차두시오」

하영이는 안라이상으로 분해하지 아니하엿다.

안라는 집에 돌아와서는 유치원에 나갈것인가? 안인다!를 오래도록 생각다가 이순이가 어떠태도로 그를 대하는지 그것을 보구싶고 그태도 여하에따라 최신이가 제안에게 그이야기를 하기도햇다.

「그 일은 모르는구나」

하고 안라는 생각하고 다소 안심하는것이엇다.

그러나 이순이는 전과 꼭 같이 하는 명랑하고 파장스러이 다정하게 그를 맛엇다.

「어째 안라 얼골이 좀 부은것 같구나. 어디가 편치못하는가」

하고 안라의 얼골을 디려다 보기도햇다.

安南의 古都 (三)

安南遊記

金永鍵

「安南의 古都」 그것은 河內와 順化를 일음이다.

지금 安南의 서울은 順化다. 그러나 安南에 歷史라하는것이 잇은 뒤로 부터 第十八世紀末葉에 이르기 까지 安南의 서울은 河內엿다. 그리고 지금 河內는 佛領印度支那의 首府요 中國이나 支那에잇어 文化의 中心地가 돼 잇다. 그런으로 事實로 河內는 엣날이나 오늘이나 安南의 서울이오 文化의 中心엿든것이다.

河內는 歷史의 오랜 보면 京城의 반쯤에는 안된다.

이 河內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고 잇섯든가? 安南에 잇어서도 古代의 社會에 관한 史料가 充分치 못하니 만치 勿論 그것도 알수는 없다.

그러나 河內의 西쪽에 잇는 郊外에서는 石器時代의 遺物과 같은 것들이 얼마 나온다. 그것들을 河內에 서울으로 살고잇든 安南사람들의 先祖의 遺物들이라고 보아도 過히 틀림이 없겟지 勿論 그 年代는 똑똑히 알수 없다. 그러나 그 속에 六朝時代의 遺物비슷한 것이 섞인것을보면 그다지 엄청나게 오랜것갈지는 안다.

이와 같은 遺物들이 나오는곳에는 지금도 大羅의 土壤이엇든 遺跡라고 하는것이 남아잇다고 하는것이 없다.

이에 대하여 特히 적어두어야 할것은 이부와는 史實이 안이다.

大羅—그것은 河內의 가장오랜 이름에 지나지 안는다.

果然 傳說이 말하는 大羅의 城이 가 어느 程度까지 精確한것인지 아니지는 잘 알수없다 그러나 지금 河內의 位置가 이와같이 옮겨진 것은 가장 엣날에 있어 지금보다 좀 西쪽에 잇섯든 大羅城이 一種의 原始時代의 사람들은 흔히 水運의 便利한곳에 살기를 조하햇다.

原始時代의 사람들은 흔히 水運의 便利한곳에 살기를 조하햇다 나 가단에 나는 지금 河內의 東쪽으로 흘으는 紅河가 이전에는 좀더 西쪽으로 흘렀든가 그러치안흐면 적어도 紅河의 西쪽에 沼澤과 같은 것이 아니엇든가 생각한다.

그러튼것이 紅河의 水利에 쫏아 河內도 東쪽으로 옮겨진것일 것이다.

그한 例로는 白馬大王殿의 傳說을 들수가 잇다.

그 傳說은 唐의 高駢이 일즉이 河內에 쫏어왓을때 馬援이 탓든 白馬가 市中에 나타낫엇다고 하는것이다. 그리하야 高駢은 馬援을 위하야 白馬大王殿이라고 하는것을 세웟다. 지금도 이 白馬大王殿은 河內의 市中에서도 좀 東쪽으로 기울어진 곳에 잇다. 그러나 傳說에 의하면 지나의 白馬大王殿자리는 이전의 그것은 아니라고한다. 즉 이전에는 白馬大王殿이 河內의 좀 西쪽으로 잇든 것이 몇번인가 옮겨 지금의자리로 갓다 한다. 이것도 河內의位置의 달러진것을 말하는 것이아닌가 한다.

또한例로는 李朝의 始祖인 李公蘊의 傳說을 들수가 잇다. 그것은 아직 그가 潛龍時代에 일이엇다 이곳 저곳에서는 群雄割據의 落伍의 首長쯤 되는것들이 너도 나도 들고일어나 이른바 割據를하고 잇는판에 누가 安南의 君主가될지 몰랏엇다.

그러나하로는 李公蘊이 어떠한古木앞에이르니 그古木우에는 十八子成이라고하는 네글자가 새여 잇섯다 한다. 十八子成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李자다. 今(李成)은 이君主가 되겟다(成)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李朝의 始祖가 됏다. 李朝의 廟는 어데잇는지 알수없다 그러나 그의子孫이 祠堂이라고하는것이 또한大羅의 城址옆에잇다는것이다. 李朝의 서울도 河內엇든 는것으로보아 이또한 河內의位置가 달라진것을 말함이 아닌가 한다.

이때에는 河內를 昇龍이라고들 햇다.

그런데 安陽王의 螺城이라고하는것은 지금 河內의 東北東쪽인 古林 가까이잇다고 한다. 그러나 이 安陽王은 마치 滿洲의 箕氏와같이 한神話的存在에 지나지못하는 것이니 까 처음부터 그의傳說따위도 믿을것이못된다. 그리고 남아지들은 모다 이전의河內는 지금의 河內보다도 西쪽에잇엇다는것을 말한다.

끝으로 小說의 傳說을 들어보라고 한다.

▼……獨逸하이델베르크大學 創立五百五十年祭는 지난 二十七日 부터 三十日까지 四日間 各國學界代表出席下에 盛大히 擧行되엇다는데 二十八日에는 同大學內에서 各國學界代表出席下에 戰歿學士追悼式이 擧行되엇는데 日本代表로서는 武者小路大使 中國代表로서는 國立中山大學 學長鄒魯氏가 出席 花環을 捧呈하엿다고.

▼……趣味本位의月刊雜誌 「고던朝鮮」이 姜一山外數氏에依하야 八月號로부터 나오리라는데 事務所 京城府觀水町七三 이라고.

그리운 綠衛 (8)

海印寺點描

李無影

「그이 다섯 層으로된것이 좀 나무입니다.」

「저기 조나무군요?」

「그러치요 그러구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一千二百살이나 된 나무입니다.」

「二千二百年? 느티나무지요?」

「新羅의 一國이기는해도 新羅가 다르다던군요……」

問답한 K에게 이러케 說明하고 잇는것은 漫畵家R와 新進作家요 讀賣한 文學靑年인 H君이다.

성황이라고는 손바닥만한 넓이의 들도 보이지안는 峽谷 나는 H君이 다던던 山峽의 푸리에 굽든는 아가지 기우리고 잇섯다. 性急한 사람처럼 부지부지 고이던 그하야한 불거품 불거품속에서 끝 번쩍이는 텃치 鮮魚의 꼬리를 나는 恍惚한 속에서 찻고 있엇다.

「海印寺는 一千一百六十三年 前의……」

H君의 說明은 아직도 끈지 안는다. 史家도 못되면서 계시판 지 개봉되엇는 K가 만기까지 하단. 이 藥林속에서 이날 소리 이새소리를 듯는 그것으로 足하지안흘까? 自然은 벗에 說明이나 必要입까? 보이는것은 보고 느끼는것은 느끼면 그만 이다. 自然에 說明을 붙인다는 것은 삶 그러진 그림에 이를을 붙인 普通學校敎科書와도 같은 것이다.

떡!하고 파나마에 무엇인지 떠러진다. 처처 엄긴 綠葉속에 서 떠러진 방울이고보니 빛도 없이 떠러지 한한 파나마 원두 瞳眶이 붙방울이다. 瀑布가 千 餘年록은 묘에서리고 서리어 맺 히진 붙방울이다.

老松우어진 싶오박한 고개를 하느적하느적 기어넘어온 小路로 新羅對照인듯 老僧 한분이 긴 집팡이를 잡고올라온다.

老僧에게 뵙나 뵙어다는것이 어느한자리의 패쿠인지 허무런 십 老僧의 뒷봅 좃은다.

H君의 기숭한 믿음 잘하는 K 를 相對로 하지도 잘 離問되는모 양 석화 같음 벗어선 溪谷가 은연히 벗어지며 洞西를 나타낸 가야의 連峰에 發時 新羅의 點 描을 보이더니 다시 史話에 精 論을 잘고 잇다.

그러는 사이에 老僧도 지나 가고 뻐꾸기소리도 자고 伽倻 의 連峰에 안개가 도로 덥이며 소世界에 오시 한개밖에 없다 는 海印寺의 法鼓이온다.

우두둑 또 비가 쏟는다 宗鏡앞과 선세월이 벗이 마울 처럼 퍼붓는다 날날던 가슴에 나려안기는 참비처럼 숨쉬기가

「그만 가시자구요.」

지 수없다.

某일내로 거에 잇은 黃海道 사 무리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열 발을 해지못하며 떡 서고 말엇 다. 賢寶이 木鐸인듯한 소리가 梵鍾에 가까운 音律을 실고 봉 긍동감 흘러온다 나는 K를 처 다보앗다 K도 말없이 내얼골 에서 무엇을 찾기나 하는것이 빠아니 쳐다본다 그때 무서하 고 머리우 솔가지를 흔드는것 은 老松의 愛撫엿이 다름없엇 겟지.

—海印寺記行의한토막—

音라운 多能兒

哲學도硏究하고 文學도 문學도, 法學도, 그우에 神學 까지도 熱心히 徹底히 공부하엿건만……!

하엿든 獻曲 피우스트의 첫 머리에서 「피우스트」가 한탄이 다. 「온갓學問에 모르는것이없 건만……하는 뜻이다. 그가 만 일 實在人物이라면 그는 놀 만한 多能兒엿젓이다.

흔히들 말하되 「피우스트」作 者 괴—테 自身이라 하거니와 「괴—테」야말로 偉大한 詩人이 오 戲曲家이며 小說家이며 더 나 아가 文學家이며 植物學者에 天文學者요 解剖學者요 生物學者외 化學者와 發明家를 兼하엿고 더구나 어느方面에서던지 優秀한 도지자가 아니기를 바랄수 잇나 니 이아니 놀랄일이냐. 畫家로서의 그는 더 말할것도 업거니와 發明에 잇어서도 그는 「에디손」을 除하고는 누구보다도 더 여러 가지 機械를 發明하엿다하며 大畫를 그리고 大彫刻도 맨들엇고 地球가 宇宙의 中心이 아닌것, 引力의 存在, 月光은 太陽의 反射인것 等까지도 그가 벌서 생각하고 잇엇다 한다. 飛行機도 그 가 처음으로 맨들어본것이다.

이것이 비록 成功은 못하엿으 나 後日學理的으로 成功할줄은 그가 벌서 豫言하엿엇다.

(行餘人)

通俗小說에 對하야 (二)

韓雪野

藝術小說과 通俗小說—即 흔히 純文學이라고도 불러지는 藝術性과 通俗小說과의 區別에 잇어서 大衆小說이라고 불러지 는—이것을 區別짓는 標準이 어데 잇는가 하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藝術批判의 基準을 가지지못한 一般의 讀者 가 보는가, 또는 藝術的眼目이 잇는 一般讀者가 보는때에는 이 兩者의

◇…區別은 極히 漠然한 것이다. 거리를 行人의 눈에는 街頭의 看板畫와 畫廊의 繪畫와의 區別이 없다. 아니 境遇에 依하여서는 한幅의 繪畫보다는 看板畫나 寫眞이 훨신 美的으로 보이는 때가 잇다. 그와 마찬가지로 一篇의 藝術的인 文學作品보다도 이른바 裁判所文學이나 大衆小說이나 講談小說이나 通俗的인 歷史小說이 보다 만흔讀者가 보다 날서한環境을 얻는境遇가 잇다. 뿐만아니라 多少間 藝術的素養과 識見이 잇는 사람으로보아도 藝術小說인지 通俗小說인지가 明確치못한作品이 얼마든지 잇다. 그 것은 勿論一篇의 小說이 藝術性과 通俗性을 함께 그內包할수잇는 까닭이다. 그래서 어떤 一部와 사람이 藝術小說이라고 指摘하는 것을 어떤 다른 一部의

□…사람은 通俗小說의 烙印을 찍어주는일이 종종하다. 그러면 이兩者를 區別하는 核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말로 쉬게—또는 一般的으로 말하자면 藝術性의 有無에잇다고 할것이나 그러면 藝術性이란 대체 무엇이며 어떠한것이냐하는 具體的인 問題에 들어가면 그것은 至難의 問題에 屬하게되고 또 難解의 複雜性을 따이게 된다.

그리하야 어떤사람은 「人生이란 누구던지 다아는 問題인것같이면서도 結局 누구던지 알지못하고 마는것같이 藝術이란 것도 亦是 그러한것이다」라고하야 不可知論으로서 그 終局의 解答을 삼엇고 뮈요—와 如한 사람은

「藝術小說과 通俗小說은 決코 別個가 먼저이 아니다」라고 主張하엿다. 即 그의

□…所說에 依하면 山城이나 探偵物이나 이른바 裁判所文學은 모두 藝術作品의前身이 거나그러치 안흐면 襲兒兄弟라 다는것이다. 그는 例證한 意味에서 또는 漠然한 意味에서 讀者에게 읽혀지는 모든 이야기와 作品에 크나 적으나 붉으나 좀으나 藝術性을 詩與하는 寬大한 態度를 取하엿다.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은 이러케도 말한다

「사람 自己가 쓰고십어서 쓰는 것은 藝術小說이요 남을 즐겁게 하기 爲하야 쓰는것은 通俗小說이다. 그럼으로 남을 즐겁게할 能力이 없는사람은 大衆 小說을 쓸수없다」

이것은 通俗小說에 對한 極히 概念的인 指摘과 아울러 個人으 로서의 小說觀을 살린 藝術論의 一端을 말하는것이라고 볼 수잇다. 그러나 여기에도 亦是 알수없는 暗中模索이 그대로 남 아잇다. 대체 무엇이 「참말 自己가 쓰고십은것」이며 무엇이 「남을 즐겁게 하는것」인가? 그 指標는 무엇인가? 勿論 이것은 그時期의 時代相과 게급關係에 依한 眞實한 把握이 없이는 그어느 것도 眞實히 可能할수는 없는것이다.

이것은 通俗小說에 對한 極히 作品이다」

이 말은 如何히 再認하고 그個性을 通하야 人生이 彷彿히 照明되면 勿論 그것은 더만흔것없이 훌륭한

◇…自己의 生活과 生命을 自己가 철말쓰라는것 作家가 될수없다. 그러면 남을 즐겁게하기爲하야쓴作品이 高一

이와 비슷한 例는 朝鮮에 잇어서의 李光洙나 尹白南의 境遇에 서도 作性이 붙잡고 또 읽을수 잇다. 처음은 자미를 부처서 읽다가도 차차 읽어가는 사이에 倦怠와 沒趣味를 느끼게되는것이다

사람이란 元來 모든것에 倦怠를 느끼기 쉬운것이나 다만 한가 지 새로 아는것만은 例外라고 할 것이다. 새로 아는데에서는 누 구나 무엇보다 興味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小說을 읽어가는 사이에 더 알려 질아없고 더 깨쳐짐이 없을때에 는 결국 興味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집 아이놈은 小學時代부터 菊池寬의」

「 中略

[…小說을 耽讀하엿는데 그의全集中 한七八卷쯤읽고 나드니 그만 다시 드려다보지도 안키에 그까닭을 물엇드니 그놈의 말이 인제 그만큼 읽고나니 더 보지안하도 당연한 것은 넉넉히 짐작할수잇다고 對答하엿다」

乾燥氷이야기

물파淸凉飮料水

그것이가진無限한冷凍能力 (上)

金民熙

量(水量)은 宇宙에잇어서 한큰 存在中의 一인것은 말할것도없다. 地球의 全表面的五億一千萬方키로메로 중에서 二億六千萬方키로메—를이 海面이라고하니 地球表面의 約七割은 물에잠겨잇는 셈이다. 이외에 地球上에는 數多한湖沼, 河川이잇고 地下에는 地下水, 空氣中에는 水蒸氣가잇다 이와같이 水의分布가 廣汎한만치 우리人類와 極히 密接한 關係에잇는것은예나 지금이나 變함이없다.

近代文化의 首都는 누구가무에라고하든지 電氣인데 그電氣의大部分은 그根源을이물에서 찾게된다. 물없이는 하로도살수가없다

□

地球의 大部分이 물에덥혀잇으나 人間의 身體도 亦是 大部分이 물이다. 人體의約七割은 물인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一日間에 攝取하는水量도 꽤만흔것이다.

그리하야 體內의水分이만해지거나 적어지거나 곳곳에異狀을 늣기기다.

그러나 人間은 食物을먹지안코는 一週間이나 十日은 생명을 부지할수가잇으나 물을마시지 안코는 못견딘다. 이것은 白痴를가지고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먹을것은 주지안트라도 二三日은 사러간다. 그러나 물을마시지안흐면 곳죽어버린다 한다

이와같이 生命維持에 必須한것이다. 더욱 지금부터의 季節에 苦熱退治의 療法으로 물보다도 더조흔것은없다. 더위에는 물을먹고 서늘큼 하는것이 第一빠르다. 물을먹으면 시원한것은 물이 蒸發에要하는 蒸發熱을 體內에서 奪取하는까닭이다 貯暗期에무더움을 느끼는것도 空氣中에水蒸氣가 飽和되어잇어서 體內에잇는 水分이 蒸發할수없는 까닭이다.

□

물은無色, 無味無臭하다고하나 事實은 無味한것이니다 水가砂같은 물맛이라는것은 그것이이나 하는물맛이라는것은 一種의 礦物이나 炭酸瓦斯같은 溶解된것으로서 이 炭酸瓦斯等 氣體가 들어 그것에는特異한맛이잇는 것이다. 이 물의맛은 즉 물속에 溶解되고잇는 炭酸瓦斯와 같은 氣體에 關係가 잇다.

그것은 水中의溶解된 여러가지의 鑛物質, 酸素, 炭酸瓦斯等에依한 것으로서 따라서地下水는 水道水에 比하야 美味하다. 또 如何한물이든지 生水가아니면 물맛은아니 맛이없다. 끄린물 煮沸한물은 無味하다. 이意味에서말하면 물은生水보다 더조흔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水質이 飮料로서 適當한 경우에 말하는것으로서 더러운 것이 섞여잇는물 또는傳染病菌 이나 寄生蟲卵이 들어잇는것은 끄리든지 또는藥品消毒을 하는것이 必要하다.

□

乾燥水라고하는것은 「무라이아이스」라고도하야 「드라이 아이스」라고 한다.

乾燥水라고하는것은 冷凍界에 잇어서 어룸이란 獨特한 位置를 占하고잇다.

如何間 第一참것은 어름인데 이 「드라이아이스」는 實로 攝氏零下八十度 五度로서 어름보다도 더찬것이다. 이乾燥水는 炭酸瓦斯를 冷却시켜 固體化한것이다.

冷却시키어 乾燥시킨것이므로 어러한 凝固物의 어덤도 겸하야 凝結하게되므로 그冷却作用부터 攝取하게되므로 그冷却作用은어름의 約十五倍에 達한다.

乾燥水가 녹는때에 發生하는瓦斯는 淸凉飮料水의 原料가되는 炭酸瓦斯이므로 人體에는 絶對로 無害한것이다.

乾燥水는 그特性으로서 어름보다 數倍의 冷凍能力을 가지고 에 어름과같이 녹드라도 물이되는 일이없으므로 食料品의 輸送이나 貯藏等에 使用하야 大端히 便利하다. 昨年 이래로 日本에 飛來하엿든 獨逸의 飛行船 「헌덴부르크」號도 食料一切을 乾燥水를 使用하야 保存하엿다 한다.

그것을 船內에 貯藏하야 目的을 達하엿고 이乾燥水의 出現은 實로 一大福音을가저온것이니다 乾燥水의 製造는 天然瓦斯를 原料로하야 炭酸瓦斯를 分離하여 製造하는것이 進展되고 따라서 炭酸瓦斯가 생기게된것과같이 乾燥水도 가까운將來에는 經濟化되어 一般化하리라한다.

貯金을受取하는自動機械

英國의 어떤銀行에서 預金者의 便利를爲하야 人間의손을 빌지 안코 全然機械的으로 貯金을受取하는 裝置가 考案되엿다는데 이것은 銀行의 出入口에서 紙幣 또는 銀貨든지 하나씩하나씩 그 揷入하면 紙幣의 그림자를 寫眞에 撮影하야 貯金帳이 十圓짜리가 몇枚 五十錢짜리가 몇個가 記錄되는 同時에 領收證이 發行되 는것은 五十錢銀貨가 몇개라고 記錄되어잇고 또 領收한時間도 印刷되고 또 그일이 다되면 그들이 他日 萬一問題가 잇다할지라도 그때에는 찍힌 順序에 따라서 잘못을防止할수가 잇다고한다.

그리하야 받은領收證을 가지고 가면 通帳에 記入해받을수가 잇는 裝置라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領收證만으로는 不正한 것이 아닌가 하는 問題로 不正確한 것이 아직은 一般化되어잇지안타고.

天官의 怨詞 (8)

朝鮮詩歌史上의 로만스

▽—趙鏞薰

金庾信은 新羅의 名將이오 三國을 統一한 元勳이다 그러나 어려서는 매우 頑하고 豪俠하여 家事를 모르고 每日 放蕩의 浮浪輩와 어개를 겻고 酒肆靑樓에서 놀기만하고 學業을 힘쓰지 아니하엿다. 그 어머니 萬明夫人은 일즉이 남편舒玄을 여희고 庾信과 그아우 欽純을 기르면서 將次 나라에 벼슬을 시키어 집안의 이름을 날리라고 가진 精誠을 다하여 庾信을 敎導하엿으나 항상 放蕩에 흘러버린 庾信은 이 精誠에 어린 片母의 敎訓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엿다.

그러나 그 어머니 萬明夫人은 庾信을 그대로 버리어둘 어머니 가 아니엇다 그는 法興王의 아우 立宗의 孫女로 王室에 嚴格한 王室敎訓을 밧앗으므로 그 아들 庾信을 가르칠 때에도 恒常 嚴格하로는

또 庾信이 酒肆靑樓에서 밤을 새우고 아츰에 술이 醉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왓다. 어머니는 조용히 庾信을 불러 앉히고 나 이미 나이 늙은지라 배 立身揚名하여 父母에게 榮華를 뵙게하고 또 國家의 柱石이 되기를 晝宵로 祈願하여 마지 아니하엿 거늘 오늘날 도리어 無賴之輩와 더불어 倡家에서 放蕩하기 日甚 하니 네 어찌 後日의 大成을 바라리오.

이러케 懇切하게 꾸짓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庾信을 바라보앗다

庾信은 어머니 小子도 사나이어늘 어찌 一個倡女에게 미처 丈夫의 將來를 돌아보지 아니하리오 이후에는 路柳牆花의 길에 발길을 끈코 다시 어머님께 걱정을 끼치지아니하오리니 용서하여주소서

하고 매달린 天官을 뿌리치엇다 그러나 天官은 옷에 매달리어 옷자락을 잡고 노치 아니하엿으므로 庾信은 칼을 빼어들고 어찌 더러운 倡婦가 丈夫의 몸

하며 우는 어머니를 慰勞하엿다.

그뒤 庾信이 또 술이 醉하여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엇 다. 庾信은 한번 決心한바잇어 다시 天官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 리라하엿으나 고지식한말은 사람의 마음을 몰랏다 그리하여 醉한 庾信을 태우고 舊路를 쫏아 그곳天 官의 집으로 向하여 갓다. 말이 門前에 다다르매 天官이 뛰어나 와 庾信을 맛으면서

아이구 도령님 이제 몇달만이 오 아모리 賤한 몸이기로 이러 케 버리는수도 잇을가요

하며 庾信의 팔에 매달리어 如怨 如慕하엿다 술이大醉한 庾信은 번쩍 精神을 차리며

이 요망한 계집 내 마음으로 한번 너를 바리엇거늘 아모리 술이 醉한들 어찌 다시 네집에 발지취를 남기리오

하여 우는 어머니를 慰勞하엿다.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말을 베어버렷다 天官은 옷을 뿌리치고

에 술을 엇가보나

하고 大聲을 한번 지르고 天官을 차버리고 한다음 말을 베어 베 다리고 잇엇다 天官을 뿌리치고 말이나온 庾信은 말고삐를 밧사 잡아다리고

베 아모리 짐생이라한들 나의 말을먹으매 나의 마음을 알리라 어찌 나를 태우고 이곳에를 왓느냐 너는바망이刑罰을받으라

하면서 칼을 빼어 말목을 갈기어 죽이고 홀로 집으로 돌아왓다 이 때 天官이 門前에서 庾信의 뒤를 바라보며 사나이의 背信을 怨望하는 怨詞를 지어부르니 「怨詞」는 이怨詞를 생각하고 天官의 이怨詞를 생각하고

寺號天官昔有緣
忽聞經始一凄然
多情公子遊花下
含怨佳人泣馬前
紅鬣有情還識路
蒼頭何罪謾加鞭
唯餘一曲歌詞妙
蟾兎同眠萬古傳

이라는 詩를지어 읊엇다 그리고 庾信이 後日에 三國을 統一한다 음 自己의大成이 少時에 天官으로말미암아 발은바 影響이 만타 하여 그를 記念코자 그집자리에 절을짓고 이름을 天官寺라 하엿 다. …(興地勝覽에서)…(끝)

漢詩

興友遊大同江

未力分局 柳興鎬

大同江上載舟泛, 與子朝夕此日遊。
清歌響散行雲遏, 妙舞影從八水流。
地如蓬島麒麟馬, 山似巫山飛浮碧樓。
赤壁蘇仙應若是, 悠同千載使人愁。

漢詩投稿歡迎

題 隨意

期限 無

女性回顧特輯

七月號

滿天下讀者를熱狂케할盛裝으로

今日出來!

新家庭

堂堂女性雜誌界女王! 빗나는今月號 꼭 읽으시라!

誌代二十錢 (送料一錢)

每月大好評中에賣切되와미처못사시는분이만사오니注文은速히하십시오!

發行所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

國難中新家庭七月號內容

머리말 …… 樹州

初期女流留學生面面 …… 李淑卿, 崔活蘭, 李惠卿, 趙信聖, 玄永成, 宋光明, 崔앨리스, 趙표데, 李恩羅, 金弼禮, 張貴運, 梁遇倫, 金앨리스, 尹貞媛

中國에留學한初代女性 …… 劉英俊, 金榮喜, 俞珏卿, 朴金淳愛, 劉琇瑗

洋裝은누가먼저햇나?

初代西洋留學生인最初女醫師 …… 朴에스터

梨花의元老敎育者 …… 故河蘭史

初代啓蒙運動者 …… 黃메레

一時社交界의明星 …… 尹고라

女權伸張問題 …… (改善되는女性의新道德律) …… 梁在厦

女性時論 …… 黃信德

國際情勢 …… 洪翼範

家庭主婦의常識欄

盛夏의結髮 …… 閔德成

夏節에適當한兒童間食 …… 李金田

理想的育兒法

改良住宅의一案 …… 朴受景

盛夏衛生三 …… 張文卿

不姙娠症을如何히하나? …… 李榮俊

輕快한女學生服製法 …… 任貞爔

美術的速成刺繡 …… 張善禧

家庭經濟와家計簿記(三) …… 李善浩

淸凉飮料만드는법 …… 金聖實

어름冷藏庫와電氣冷藏庫 …… XY生

全朝鮮女子卓球大會記 …… 曺明煥

第十五回美展女流作品評 …… 雪蕉生

짖지않는개(童話) …… 尹石重

그림없는그림책(完) …… 徐恒錫

잠자리(童謠) …… 金三葉

하도기빠신짝까지잃든그때 …… 朴鳴瑤

學生欄 우리는農村으로가자好壽敎 …… 白上鳳

建設圓滿家庭 …… 王合鳳

傳染病을豫防하자면好壽敎 …… 朴興吉

梨花가社會에내놓은일꾼들 …… 金永義

西洋女子結髮變遷相

朝鮮의黃髮夫人 …… 沙雲生

舊態新裝(漫畫人) …… 崔永秀

巫覡의神歌(三) …… 孫晉泰

讀者文壇

浦口情抒 …… 成燮鍾

思念小譜 …… 馬鳴

시은厭世 …… 李澄敎

彈琴臺(外一篇) …… 牧渡渭民

哀愁 …… 李影園

노래의나라 …… 林湖

湖女 …… 金福洛

正義(外一篇) …… 金觀浩

종달새 …… 李湖影

新家庭趣味室(色刷)

隨筆

夏路千里(紀行) …… 崔마리아

시골에돌아와서 …… 崔仁俊

시골사람의생활譜 …… 金永愛

夏日雜感 …… 戊戌生

이달文藝

거울(詩) …… 一石

에머리烽火臺(譯詩) …… 金尙鉉

푸른눈(譯詩) …… 張永淑

(詩) …… 尹泰雄

僧空海의下山(短篇) …… 白夜

破鏡(連作小說) ……

ClibPDF - www.fastio.com

朝鮮女子스포츠界의 歷史的의 最高豪華版
女子庭球大會
◇…第十四年을맞이하야 九月廿三日擧行

朝鮮女子庭球界의 唯一의 豪華版이오 最古의 歷史를 자랑하는 本社主催 全朝鮮女子庭球大會는 今年으로서 一般社會와 特히 全朝鮮의 各中等女學校의 絶對的支持아래 어느듯 十四週年을 맞이하게 되엇다. 이리하야 傳統的歷史에 빛나는 第十四回大會는 例年에 依하야 仲秋의 佳節이자 우리女子庭球大會날로 되어온지 七年을 繼續하는 秋分節, 九月二十三日(水曜)京城運動場에서 열기로 되엇읍니다. 詳細한 規定이며 其他要項은 不日女子中等學校와 各團體에 決定發表하겟거니와 기다리든 選手 七月달에 들어서 一般參加의 範圍가 얼마나 될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本社主催

中等校野球大會
明日부터로 日程變更
延專主催本社後援의 第六回

延專主催, 本社後援의 第六回 中等學校野球大會는 四日부터 開催하기로 되엇든바 그동안 장마비로 因하야 ... 不得已 明日(四日)에 入場式을 行하고 六日(月曜)에 決勝戰을 行하기로 되엇다. 當日의 日程은 다음과 갈다.

▲四日(土曜)午後一時入場式 第二試合午後二時半부터 徽文—中央戰 ▲六日(月曜)午後四時부터 決勝戰

延專庭球隊 海州서勝捷

【海州】 海州體育會主催, 本社海州支局後援으로 지난二十九日 午前十時부터 海州運動場에서 延專庭球部對海州軍의 對抗試合을 開催하엿는데 選手의 入場式이 잇섯고 主催側會長의 開會辭가 잇섯고 이어서 主催側의 挨拶이 잇슨 다음 試合에 드러가 延專軍이 勝하엿다 【海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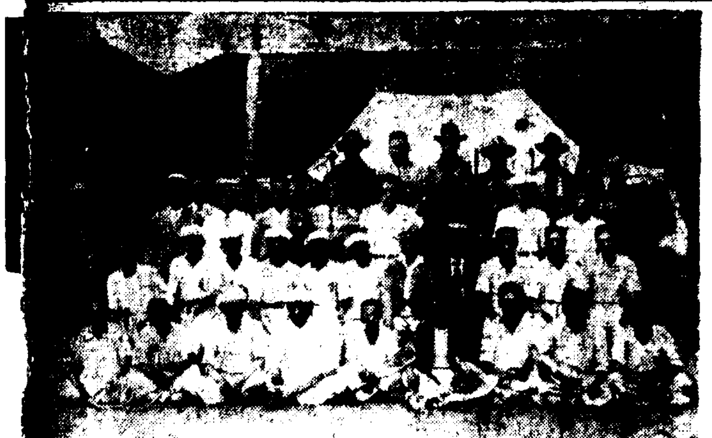
【第一라운드】
× (金光勳·朴正學) 2—4 (李德淳·李鍾元) ○
× (李奎承·鄭鍾祖) 1—4 (金天命·尹相元) ○
○ (尹鍾元·鄭鍾仁) 4—0 (張熙·張斗錫) ×
× (高昌煥·金海洙) 2—4 (金鍾泰·安鍾彦) ○
○ (鄭允鉉·崔鍾健) 4—0 (金千故·金海澤) ×

【第二라운드】
○ (尹鍾元·鄭鍾仁) 4—1 (金鍾泰·安鍾彦) ×
× (鄭允鉉·崔鍾健) 0—4 (金天命·尹相元) ○

【第三라운드】
○ (尹鍾元·鄭鍾仁) 4—1 (金鍾泰·安鍾彦) ×

【第四라운드】
○ (尹鍾元·鄭鍾仁) 4—2 (金天命·尹相元) ×

◇海州體育會記念撮影



五段二名
◇敎龍으로任命
中央蓄督會昇進審査

中央蓄督會昇段審査會는 柔道部에서 ...

五段李仁鍾, 石鎭國 △四段方泳斗 三段金庸五, 劉永福, 李元榮 △二段朴仕榮, 李萬茂 △三段鄭元成, 李正植 △初段鄭鍾辰 李祚鉉△特待黃東伊, 朴鳳振, 李時德洪基榮, 孔錫鴻, 金炳大 樂, 尹彙吉, 金霞榮, 鄭尙涉, 李吉 福用 △二級申榮均, 金若鍾, 金榮鍊 △二級乙李錫珍, 金永眞 李鍾範, 朴漢表△三級申明柱 △三級乙崔正洙, 全不善 △四級 甲李錫洪, 李錫元, 李崇誠, 金鳳 洙, 李昌德, 李東榮, 洪進範 尹秉奭, 金有燮, 金秉俊, 徐廷 爛△四級乙金在德, 金基朝, 李 日燮, 金炳浩△五級甲李國鉉, 朴一奉, 朴錫壽, 金相鉉, 張斗 相△五級乙金豪五, 金鍾燮, 安 淳基, 盧壽根, 金錫成, 金鳳宅 △六級甲高昌植, 李斗鍊, 王英 植, 李喜天, 林興鎬李寅錫, 鄭 淳鎬, 鄭大鎬

올림픽實況 DK서도 中繼放送

올림픽大會도 一個月앞 두고 臨迫한바 日本放送協會에서는 獨逸本과 河內, 山本兩아나운서를 派遣, 日本代表選手의 活躍을 올림픽스타디엄에서 陸上, 水上 兩競技를 모두 實況과 記錄等에 重要를 期하야 實況 放送으로 全日本에 中繼하기로 되엇다. 全放送으로 京城中央放送局에 通知하여왓으므로 DK에서도 이것을 全朝鮮에 中繼하기로 되엇다. DK에서 中繼할 全放送프로 及出場豫定選手名은 다음과 갈다.

【2日】 後11.00—12.00 (實況) 走高跳決勝(朝隈、田中、矢田.) 女子擲槍決勝 (山本) 百米第二豫選 (吉岡、鈴木、谷口、佐佐木)
【3日】 前6.30—7.00 (實況) 一萬米決勝 (村社) 擲鐵丸決勝 (高田)
【4日】 前6.30—7.00 (레코드實況) 百米準決勝 百米決勝
【5日】 前6.30—7.00 (實況) 走巾跳決勝 (田島、原田、戶上 大島、古田、朝隈) 女子百米決勝 (小宮) 四百米障碍決勝 (高田、市原、相原)
【6日】 前6.30—7.00 (레코드實況) 棒高跳決勝 (西田、大江、安達) 二百米決勝 (吉岡、谷口、矢澤 鈴木) 百十米高障碍準決勝 (村上、淸水)
【7日】 前6.30—7.00 (레코드實況) 三段跳決勝 (大島、原田、島田 古田、戶上) 百十米高障碍決勝 千五百米決勝 (中村、田中) 輪投決勝 (長野、植野)
【8日】 後11.00—12.00(實況) 百米自由型準決勝 (遊佐、新井 田口、杉浦、宮崎、新開)
【9日】 後11.00—12.00 (實況) 四百米障走決勝 (吉岡、佐佐木 谷口、矢澤、鈴木) 百米自由型決勝 女子走高跳決勝 (西田) 마라손出發 ([illegible]、孫、鈴木、南) 百米自由型決勝
【10日】 前6.30—7.00 (레코드實況) 마라손到着 八百米[illegible]泳豫選
【11日】 後11.—12.00 (實況) 八百米[illegible]泳決勝 女子二百米平泳決勝 (前畑、[illegible]井)
【12日】 後11.00—12.00(實況) 四百米自由型決勝 ([illegible]、寺田 根上、石原田、牧野、永見、本田、田中英) 女子百米背泳
【14日】 後11.00—12.00 (實況) 千五百米自由型準決勝 (四百自由型) 二百米平泳準決勝 (葉室、小池 伊藤) 百米背泳決勝 (兒島、淸川 吉田)
【15日】 後11.00—12.00 (實況) 二百米平泳決勝 女子四百米自由型決勝 (守屋、[illegible]、小島、竹村、[illegible])
【16日】 前6.30—7.00 (實況) 千五百米自由型決勝

그리고 放送하지안는 陸上、水上 競技種目은 다음과 갈다. 四百米、八百米、五千米、三千米障碍、五萬米競走、千六百米리레-、女子八十米障碍、女子跳高、女子百米自由型、男子飛込

올림픽初代의마라손優勝者를
伯林大會正賓으로모서
그는七十老齡의한農夫스피리디온·루이스

現代올림픽이 復活한지 滿四十年, 今年으로서 第十一回를 맞이하야 獨逸의 伯林에 열리게 되거니와 이歷史的大會를 더욱 意義있게 하기爲하야 主催國獨逸에서는 特히 四十年前 第一回올림픽이 올림픽의 發祥地인 希臘 아텐에열리엇을때 初代의 마라손 優勝者 ◆루이스◆를 이번올림픽 大會의 名譽있는 正賓으로 招待하는同時에 아텐의 올림피아로부터 伯林까지 聖火의 릴레-의 最後를 이로 가저오기로하는데 그最終走者로 ◆루이스◆老選手가 맡기로 되엇다. 그리하야 大會 開會當日 四十年前 마라손의優勝者 ◆루이스◆는 올림픽스타디엄에 聖火를 들고 들어오게 되엇다. 그는 今年 七十가까운 老齡으로서 이름은 ◆스피리디온◆루이스 (SPIRIDION LUIS)로서 希臘 마루시아 一個寒村한 農村에서 生長한 農夫이엇다. 一八九六年 第一回大會에 優勝한 以來 지금까지 農村에서 至今도 그의 農事에 勤勞하는 健實한 農夫로서 그의 名譽를 빛내고 올림픽 精神에 비추어 그를 正賓의 자리에 모시게 되엇고 또 처음 出發하는 聖火 릴레-를 行하게 된것이다.

◇올림픽記念品

全朝鮮 陶器製造業者 組合에서는 이지음 伯林올림픽大會를 記念하야 「니브」◆올림픽◆수 「上面은 五輪을 記念하기로 되엇다. ◇聖火의 上面은 五輪을 配置한것이오 (下)交鏡으로 서 一面에 올림픽旗, 他面에는 競技種目을 그린것이다.

全朝鮮庭球
選手權
來十二日擧行

京日主催의 第十三回 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는 七月十二日(日) 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庭球코트에서 行하기로 되엇다.

高麗卓球理事會經過

第四回 高麗卓球聯盟 理事會는 三十日午後九時부터 朝鮮中央靑年會 社交室에 열고 다음과같이 討議事項을決定하고 同十二時에 閉會하엿다.

今年처음最初의
全朝鮮水上競技
七月十九日開城에서
高麗靑年會主催·本支局後援

【開城】 開城高麗靑年會主催, 本支局後援으로 第二回全朝鮮水上競技大會는 七月十五日午後一時부터 開城府營풀에서 行할터인데 朝鮮에있어서 今年度水上競技界의 첫大會인만큼 人氣는자못높다고한다. 同大會綱領과 規定要項은 다음과갈다.

◇大會綱領
一、本大會는 競泳競技와 一般의 水上競技普及發達을目的으로함
一、本大會는 全朝鮮一般의 優勝을 決定함

◇規則
一、本大會의 種目은 如左함 自由型 百米、二百米、四百米 八百米、千米▲背泳 百米、二百米 百米▲平泳 二百米、四百米、三百米 五百米▲메도레 三百米▲리레 이四百米
一、本大會出場選手는 레이스에게는 次回大會까지 保管함
一、本大會出場選手는 必히水泳服을 着用할것
一、本大會出場選手는 一人三種目以內에 限함 但리레이는此限에不在함
一、本大會入賞選手는 三等까지로함
一、本大會의 運營規定은 朝鮮水上競技聯盟規定에依함
一、場所—開城府營풀(二十五米水路)
一、時日—七月十九日(日)午後一時부터
一、申請期日—七月十五日午後四時까지
一、申請場所—高麗靑年會體育部로, 但(葉書로申請하여도無妨함)
一、參加金—每人二十錢(但選手登錄請求할것)

◇決定事項—在東京留學生으로組織된 東京留學生水上競技團이 今番 本大會를 機會로 하야 故國 에 오게되엇다

◇朝鮮選手權試合에 出場할 △朝鮮의 決定—李在明, 尹昌燮, 朴炳箕, 金乾玉, 朴在燁, 曺明煥

◇蹴球部蹴名的選手三回 (前略)...
◇高麗陸上部(日本陸上競技) 二十七、八兩日 陸上二部競技大會 에서 擧行 主된成績은 二百米21秒7로最勝△四百米16秒3△八百米1分50秒4에스트만△高跳14秒3스텐리△投圓盤51米90카렌딘△投擲 타마스피로우△走高跳2米상바△棒高跳4米33 그레바、세프토、바로프、레트

運界動靜

▲崔允榮氏(世界올림픽水上選手) 東京學校에서 暑休로 올림픽에 다녀오는 八月頃에 歸鄕하게되엇다 ▲ 平壤 三時二十分入京、七月二日午後三時二十分入京、일본리 미쓰오氏와 咸鏡道派遣 敎員 一行과 함께 本町호텔에 投宿

수요의 運動

▼野球 都市對抗朝鮮豫選 第一日 京城—淸津戰 午後四時半京城球場

第六回中等學校野球大會

二、三、四의 三日間엿든바 降雨로因하야 다음과같이 日程을 變更 四、六兩日間에 擧行하기로 되엇읍니다.

▲四日(土)午後一時入場式 △徽文—中央(一時十五分) 大東—普成(四時)
▲六日(月)午後四時二十分부터決勝戰

主催 延禧專門學校 後援 東亞日報社

最近顯著히發展된
朝鮮水產물不조림
工場數는全南二十六이首位
製造量二十餘萬兩

朝鮮의 水產物통조림製造는 一兩年來 急激히 增加되어 昭和十年末에는 許可된 工場數는 全南의 二十六을 筆頭로 百十四를 算하고 그製造高는 朝鮮에서 생산하는 양을 차지하고 잇다.

昭和	製造函數	價格
八年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十年	[illegible]	[illegible]

그러고 十年度의 製造함수는 도미요재리어 十七萬九百函, 價格九十九萬二千圓, 鯖罐詰二萬四千四百函, 六十二萬三百函으로 生産의 가장 旺盛하엿은 成南이며 慶南이 二十一萬三千圓, 江原의 四十二萬六千圓이 아이 다음이라한다.

全南漢藥組合
發起人會開會

【光州】 全南 漢藥業者組合을 組織하려고 斯界의 重鎭 劉養根 韓永珍氏의 發起로 去六月三十日 午後二時 光州帶木屋에서 全南漢藥代表發起人會를 開 하고서 創立總會의 諸般事項을 協議하엿다.

窯業講演會
三日商議서開催

商議第一會議室에서 左記講演會를 開催하기로 되엇다. 朝鮮工業協會及 京城商議主催下에 三日午後四時부터 京城

講師 商工省陶磁器試驗所長 平野耕輔氏
演題 日本에 잇어서의 陶磁器工業의 將來에對하야

全北特產雨傘
品質向上企圖
今後는檢査를徹底

【全州】 去四月十日부터 朝鮮雨傘과 柿皮傘을 全北特產으로 指定하고 濁特產品取締規則을 適用하야 販賣一切를 檢査하야 統制하게되엇다함은 旣報한바이거니와 現在 檢査規則이 適用되는 區域은 全州府及全州郡 一圓에 不過하엿으나 今後는 다시 指定區域을 擴張하야 全北一圓으로 檢査를 施行하리라 한다.

產業俱樂部

枸杞子나무栽培

【問】 枸杞子나무를 栽培코저 하는데 栽培方法과 種子의 販賣處及 價格을 詳細히 하여주시오 (全南一讀者)

【答】 江原道에도 野生이 잇으나 藥材로는 珍島에서 産出합니다. 南木 種子等을 求得하실 분은 直接珍島에問合하시오 價格에 있어서는 一斤一圓內外입니다.

質問은 葉書一枚一問 簡單하게 要領있게

硫安需要
時勢는低迷

統制會의 不良品은 勿論 在庫品의 販賣에關하야도 一一히檢査하리라하며 肥料의 檢査도 徹底化시키리라 하므로 今後에는 朝鮮硫安의 品質이 急速히 向上되리라 한다.

硫安은早魃等으로需要가 없고 今然無한 狀態이든바 前月末來의 降雨에依하야 移出은 順調로進行되고 있다.

◇群山海運協會 郵船協系의 群山海運協會에서는 四日群山에서 定時總會를 開하고 無配案을 附議하는데 取締役一名의 改選을 行하고 山田勝氏辭任 高井春五郎氏 選任될터이라고한다

京濱合同으로
米運賃會議再開
十五日京城서開催

西朝鮮京濱間 運賃協定會에서 東京에 서 開催한 米運賃會議는 西朝鮮京城間 運賃會議와는 別個로 五圓 上의 六十五圓으로 決定하엿는데 京城에서 運賃協定을 表하게 朝鮮의 米運賃을 協定하기로되엇는데 來七月十五日부터 京城에서 運賃協議會를 開催, 京濱荷主의 出席을 要하게 되고 一般招待狀을 東京大阪方面의 荷主에 發送하엿는데 京濱荷主가 出席할 모양이라 하며 協議를 하는 京濱荷主가 參加하지 안는 경우는 運賃은 運賃協定은 關係方面에 多大한影響을 줄것으로 觀測된다.

그리고 京濱運賃은 會議 散會後 關係者 五人의 會合을 再開할터이다

年十萬圓目標튼
甕津柹減收難免

【甕津】 甕津地方에特産物中하나인 甕津柹는 그品質이良好하야 大都市에서도 好評을받고잇다 甕津郡의 一面 一百十五里柹의 産地는 富民面에 蔣甲里、東南面에 長甲里와 北面에 興神里와 上洞里 西洞面에 長洞里 杏里와 郊井面인데 昭和十年十二月末調査에 依하면 柿樹數一萬七千七百十二本에서 八萬三千九百九十五貫을 生産하여 當時時價로 換算하면 一萬三千七百一圓에 達하며 그리고 今年은 年十萬圓을 目標로 奬勵하야 왓는데 今年은 年結果와 冬期寒氣로 被害로因하야 三割假量이 減收되리라고한 다.

殖銀公共產業
貸出金用途別

殖銀의五月末 現在公共團體貸出金用途別表는 如左하다 (單位口、千圓)

用途別	口數	金額
金融組合會貸付	三	三、[illegible]
行政	一〇	[illegible]
敎化	[illegible]	三、[illegible]
衛生	三一	一、六八
交通運輸	一	八〇
水利水道	七八	八一二六
土地改良	四四	九一五四
農業	三八九	九五九二
林業	八	一四六
畜業	四四	一一三七
蠶產	五四	二六二三
工業	二〇	六六七
水產	一九	一〇六三
電氣瓦斯	五	一八六
土地	八八	一〇四九四
鐵業	一九	三二
商業	二〇	三〇九二
土地家屋	一八五〇	二〇二三
副債整理	一四三	八八〇
其他	二	一三
合計	三八二三	八七三三一
前月末殘高	三八六	八七〇三

各地春繭共販

▼扶安 全北扶安郡農會에서는 去十五日부터 二十五日까지 春繭共販을 開始하엿는데 今年豫想石數는 一百五十五石이라는바 品質은 良好하고 價格도 昨年에比하야 五十錢이나 더하다고한다

地方產業雜信

▲開城 昨年冬季서부터 工事中이든 開城稅務署 新廳舍는 요사이 工事가 完成되어 지난一日午後二時부터 同廳舍에서 各界名士多數列席下에 盛大히 落成式을 擧行하고 이어 同署管內酒造業者의 品評會 褒賞授與式을 擧行하엿는데 當日 受賞者는 다음과같다고 한다.

濁酒之部 優等賞▲金聖漢▲徐丙雲▲一等賞▲千東根▲徐丙雲▲安泰哲▲藥酒之部優等賞▲金聖漢▲李喜淳▲燒酎之部▲優等賞▲金永泱▲開城酒造株式會社▲金聖漢▲鄭道常▲韓明鎬▲金顯永

財團法人 朝鮮酒造協會開城支部 賞品▲金聖漢▲崔斗[illegible]▲金[illegible]▲燒酒金永泱

法律顧問

【問】 甲은 乙과 約一年前부터 某地方에서 土地賣買를 하여 왓으며 一週日前에 不知何人 者(丙)으로부터 某土地賣却許 時에 約束한 報酬金 ○○○ 圓을 支拂하라는 內容證明가 甲에게왓읍니다. 그런데 그內容을 調査하여본즉 某土地賣却當時에 乙이丙에게 약束○○○圓을 주마는 約束을한것이 아니라 某土地賣却에對하야 盡力하여주면 若干의 報酬金을 支拂하겟다고 約束이 잇엇다고 합니다. 그리고 甲은 全然不知 하고 今始初聞이므로 拒絶通知를하엿습니다. 法律上 問題가 된다 고보면 甲에 對해 責任가如何, 指定 金은 無하나 丙의功勞가 曖昧 한 問題가 잇다하면 甲에게 責任을 如何 (仁川 甲生)

【答】 丙의努力으로 賣買가 成立 되엇다하면 丙은 甲에게對하야 相當한報酬를 請求할수잇읍니 다. (辯護士 尹元上)

副業品時勢
(朝副協調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練馬 靑根	十本	[illegible]
時無 靑根	三本	〇四—〇三
甘藷(源氏)	一匁	[illegible]
里芋(白芽)	一貫	[illegible]
馬鈴薯(新)	一匁	[illegible]
同 赤(同)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牛蒡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土生姜(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慈芋	五貫	[illegible]
長芋	一貫	[illegible]
도마도	同	[illegible]
甘藍	同	[illegible]
甜瓜	同	[illegible]
靑瓜	同	[illegible]
南瓜(新)	一箱	[illegible]
신검草	一貫	[illegible]
茄子	百本	[illegible]
胡瓜	一箱	[illegible]
玉蜀黍(新)	[illegible]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林檎(國光)	百本	[illegible]
同(紅玉)	同	[illegible]
同(倭錦)	同	[illegible]
同(祝)	同	[illegible]
梨(早生赤)	一貫	[illegible]
同(廿世紀)	同	[illegible]
同(晩三吉)	同	[illegible]
同(明月)	同	[illegible]
同(今村秋)	一貫	[illegible]
同(早生赤)	同	[illegible]
葡萄	一貫	[illegible]
同(甲州)	同	[illegible]
同(마스카트)	[illegible]	[illegible]
桃(天津)	一匁	[illegible]
生栗	一斗	[illegible]
實柏(皮付)	一石	[illegible]
同(皮無)	一升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落花生	百斤	[illegible]
蜜柑	十箱	[illegible]
金柑	一貫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柿	[illegible]	[illegible]
枇杷	一箱	[illegible]
夏蜜柑	一貫	[illegible]
水蜜桃	一箱	[illegible]
百合根	五貫	[illegible]
三 葉	十把	[illegible]
生 薑	十本	[illegible]
高麗芝	十把	[illegible]
白 瓜	十本	[illegible]
마 늘	百個	[illegible]
冬 瓜	一箱	[illegible]
枝 豆	十把	[illegible]
西 瓜	一貫	[illegible]
分 葱	十把	[illegible]
英 豆	同	[illegible]
赤目芋	一貫	[illegible]
早松茸	同	[illegible]
醬 기	一箱	[illegible]
靑 梅	一貫	[illegible]
金 瓜	百本	[illegible]

鑛業權動靜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二一〇	金銀鑛	[illegible]	六月一日	[illegible]
一三二一一	同	[illegible]	同	[illegible]
一三二一二	同	[illegible]	同	[illegible]
一三二一三	銅金	[illegible]	同	[illegible]
一三二一四	金銀	[illegible]	同二日	[illegible]
一三二一五	同	[illegible]	同	[illegible]
一三二一六	金銀	[illegible]	同	[illegible]
一三二一七	金銀	[illegible]	同	[illegible]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八八五九	同	黃海道遂安	六月一日	[illegible]
一〇八七一	同	[illegible]	同	[illegible]
一一八五五	同	[illegible]	同	[illegible]
九一二三	同	[illegible]	同二日	[illegible]
七〇三九	同	[illegible]	同三日	[illegible]
一二一二一	同	[illegible]	同	[illegible]
一二四六六	同	[illegible]	同	[illegible]
九〇一九	同	[illegible]	同	[illegible]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八五八	[illegible]	五月二十七日	[illegible]
八五二三	[illegible]	同	[illegible]
一二八九八	[illegible]	同二十八	[illegible]
七一三五	[illegible]	同二十九	[illegible]
八五二三	[illegible]	同	[illegible]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二三七	[illegible]	六月十七日	取消
九九三三	[illegible]	同	同
七四三四	[illegible]	同	同
九三九八	[illegible]	同	同
一〇一〇八	[illegible]	同	同
一一六六二	[illegible]	同	同
一一五三七	[illegible]	同	同
九二一四	[illegible]	同	同
九九四三	[illegible]	同	同

鑛業代理人選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一一四二五	[illegible]	西山吉氏[illegible]	[illegible]
一八七四	[illegible]	中村 嘉平	[illegible]
一一五七一	[illegible]	金 正 河	[illegible]
一一四二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一六六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一二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四九〇	[illegible]	竹內 [illegible]	[illegible]
一二八六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二九一三	[illegible]	日本[illegible]	[illegible]
八〇九三	[illegible]	大澤組之助	[illegible]

鑛業權表示變更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一四七六	[illegible]	五月廿六日	[illegible]
一一三〇八	[illegible]	同二十七日	[illegible]
七三三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